

주변 인구 빨아들이는 혁신도시…중소도시 상생 모색해야

전남 시·군서 9년간 4710명 유입…25~49세 2242명 절반 차지
진주·원주 등 5개 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서 6만1400명 인구 유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착공한 이후 9년 동안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온 인구가 4700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인근 지방 중소도시들에도 지역 경제·산업생태계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대구·울산을 제외한 중소도시 5곳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들어간 인구가 총 6만1400명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인근 지자체는 혁신도시가 있는 광역시·도에 입지한 지역을 말한다.

지난 2007년 착공해 2014년 완공한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2012~2020년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온 인구는 471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시·군에서 들어온 4710명 가운데 47.6%인 2242명은 ‘핵심생산가능인구’로 꼽히는 25~49세였다.

인근 지자체 유입 인구의 10명 중 1명 꼴(10.3%)은 0~4세 유소년 인구였다.

나주 혁신도시 외에도 전북 전주시·완주군(2만4148명), 경남 진주시(1만4645명), 강원 원주시

◆중소도시 입지 혁신도시별 주변 지자체 순유출인구

주변지자체→혁신도시					
전출지	전입지	계	0~4세 (유소년)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이외 연령대
전남	나주	4710	483	2242	1985
강원	원주	14622	919	8065	5638
충북	진천/음성	-857	4	-322	529
전북	전주/완주	24148	3139	12834	8175
경북	김천	3275	-151	1343	2083
경남	진주	14645	2222	6159	6264
제주	서귀포	-7280	-467	-4153	-2660

자료: 통계청, 2012~2020년 시군구 진출입자별 순이동자수
주변 지자체는 혁신도시와 동일한 광역시·도에 입지한 지자체

(1만4622명), 경북 김천시(3275명) 등도 주변 지자체로부터 인구 유입이 발생했다.

반면 제주 서귀포시(-7280명), 충북 진천군·음성군(-857명) 등은 혁신도시 입지에서 인근 지자체로 인구가 이동했다.

최근 9년 동안 주변 지자체에서 5개 혁신도시로 주소를 옮긴 인구는 총 6만1400명으로, 이 가운데 핵심생산가능인구는 3만643명(49.9%), 유소년인구는 6612명(10.8%)였다.

김 의원은 “주변 중소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유출이 심각해 분래 취지의 국가 균형발전이 무색하게 되고 있다”며 “지금의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인근 도시의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5년 연속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7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전남 9754명이 순유출됐지만, 나주에는 1232명이 순유입됐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순유입을 기록한 지역은 무안군(5337명), 순천시(2713명), 나주시, 진도군(782명), 화순군(174명), 담양군(53명) 등 6개 시·군 뿐이었다.

나주에는 지난해 전남 시·군 2305명이 들어왔다.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1만598명이었고,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9689명이었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나주 빛가람동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기준 3만9015명으로, 혁신도시 계획인구 5만명의 78.0%를 달성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월천저수지 녹조방제작업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최근 함평군 손불면 월천저수지에서 녹조 방제작업<사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상류 오염물질 유입과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성된 수면의 녹조를 제거했다. 선박을 활용해 친환경 녹조제거제 400 L도 살포했다.

함평지사는 농업용 저수지 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2회 녹조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경계 단계에 진입하면 녹조 방제계획을 세워 선제적으로 수질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녹조발생 사전 예방으로 양질의 농업용수 보전 및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봉 지사장은 “수질오염 재난 대응 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찰활동을 통해 녹조 확산을 방지하고 청정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촌건축·농촌계획 우수 아이디어 온라인 전시

한국농어촌공사

수상작 오늘부터 공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21년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과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 수상작’이 13일부터 온라인에 전시된다.

이들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한국농촌건축학회·농촌계획학회 주관, 농촌진흥청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1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됐다.

수상작 76점은 가상현실(VR) 방식을 통해 관련 누리집(www.gallery360.co.kr)에 공개된다.

관람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오는 15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농촌건축대전 대상은 ‘농촌지역 거점 커뮤니티센터 설계’를 주제로 한 한경대학교팀(이재운·최미나·최지원)이 수상했다.

이 작품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지구(곡성·담양·홍천·봉화·예천·고성군)가 대상이다.

농촌계획대전 대상에는 ‘다양한 가치의 농촌 재생’을 주제로 한 경북대학교팀(고보경·김기년)이 선정됐다.

대상지는 농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9개지구(곡성·담양·홍천·음성·완주·봉화·예천·고성군·남원시)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전력 공기업 4곳, 3년간 30억 부담금 납부

지난해 한전 9억4000만원 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력 공기업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 동안 30억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을 포함한 혁신도시 3개 전력공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13억5100만원을 냈다.

장애인 고용을 부담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한전

이 9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 4억600만원, 전력거래소 500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한전KDN 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들 4개 전력 공기업이 낸 부담금은 ▲2018년 5억2500만원(한전 3억7300만원·한전KDN 1억4600만원) ▲2019년 11억4800만원(한전 8억4900만원·한전KPS 1억9900만원·한전KDN 1억원) ▲지난해 13억51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면서 총 30억2400만원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

기관은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한전의 장애인 고용률은 3.27%(768명)로, 기준 고용률을 밑돌았다. 나머지 3개 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한전KPS 3.4%, 한전KDN 4.05%, 전력거래소 4.07% 등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지켜야 한다”며 “산업부 소속 기관장들은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생애수지관리 비법 등 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달부터 2개월 동안 퇴직예정 교직원 400명에게 ‘은퇴설계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강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하나로 마련됐다. 대상은 올해 퇴직예정인 교직원들이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한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유평창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의 ‘생애수지관리 10가지 비법’과 배우진 세무사(세무법인 삼성)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 시크릿’ 등으로 수업이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사학연금은 수강자 만족도 조사를 벌여 향후 교육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온라인 교육 전용 플랫폼 ‘소셜에듀+센터’를 열어 사학연금제도·은퇴준비·건강보험제도 등을 소재로 비대면 강의를 벌이고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은퇴 후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퇴직을 앞둔 교직원들이 연금과 더불어 건강, 재무 등 다양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대지 : 364 m²

■건물 : 411 m²

■층수 : 3층

■세대수 : 6세대

■평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